<h1>나 혼자만 레벨업-10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mc591dd32a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00화</p>  
<p>아이템 '탐욕의 구슬' 버프를 받은 어금니의 힘은 대단했다.</p>  
<p>후욱.</p>  
<p>주위의 공기가 일순간 싸늘해질 정도로 힘껏 숨을 들이마신 어금니가.</p>  
<p>쿠우우우우우-</p>  
<p>거대한 불기둥을 좌우로 뿜어내며 적들을 녹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,7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고위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2,2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.</p>  
<p>.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적을 처치했다는 메시지와 경험치를 획득했다는 메시지가 끝도 없이 주르륵 올라갔다.</p>  
<p>띠링, 띠링 하는 기계음이 한참 동안 끊이지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대박이다!'</p>  
<p>마나가 고갈됐는지 어금니가 공격을 멈추었다.</p>  
<p>방금 한번의 공격으로 무리 지어 덤벼들던 악마들의 대다수가 증발했지만, 운 좋게 불길을 피해 살아 남은 녀석들도 있었다.</p>  
<p>그런 놈들은 그림자 병사들을 시켜 정리했다.</p>  
<p>두두두두-</p>  
<p>100명이 넘는 그림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쳐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니, 이제야 진짜 '그림자 군주'가 된 기분이었다.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기분 좋은 메시지는 다시 이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림자 병사들만을 이용해 몬스터들을 전멸시켰다.</p>  
<p>그중 가장 큰 수훈자는 누가 뭐라해도 어금니였다.</p>  
<p>'어금니 녀석...'</p>  
<p>진우의 고개가 뒤로, 좀 더 정확히는 뒤쪽의 위를 향했다.</p>  
<p>거인처럼 커진 하이오크족 주술사 출신의 마법병과 녀석의 몸집에 맞게 거대해진 '탐욕의 구슬'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탐욕의 구슬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전자가 사용하는 마법의 데미지를 두 배로 끌어올려 주는 아이템.</p>  
<p>그림자 병사가 되면서 너프되었을 어금니의 힘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도 남는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'탐욕의 구슬은 당분간 어금니에게 맡겨야겠다.'</p>  
<p>마법계열이라고는 해도 증폭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킬이 전무한 진우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스킬 정보를 열었다.</p>  
<p>[추출 가능한 그림자 수: 127/820]</p>  
<p>[저장 가능한 그림자 수: 127/155]</p>  
<p>'그림자 추출, 그림자 저장, 군주의 영역.'</p>  
<p>전부 다 '탐욕의 구슬'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들이었다.</p>  
<p>추출이나 저장할 수 있는 그림자 수를 늘리려면 현재로선 지능 스탯을 올리는 방법만이 유일했다.</p>  
<p>진우는 스킬 정보를 닫았다.</p>  
<p>척, 척, 척.</p>  
<p>전투를 끝낸 병사들이 하나둘 다시 진우 앞으로 모여들었다.</p>  
<p>수북이 쌓인 악마들의 사체를 살펴보던 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'악마들 머릿수가 머릿수다 보니 아이템들도 엄청 나왔네.'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.</p>  
<p>이번엔 아이템 획득 메시지가 끝도 없이 올라갔다.</p>  
<p>'챙길 건 다 챙겼고.'</p>  
<p>미소를 지으며 아이템들을 획득해 나가던 진우가 수거 작업을 끝마치고서 아이스 베어 마수병인 '탱크' 위에 올라탔다.</p>  
<p>아직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인 '진입 허가서'가 나오지 않았다.</p>  
<p>그 말은 몬스터들을 더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.</p>  
<p>진우는 이동을 지시했다.</p>  
<p>"이랴!"</p>  
<p>탱크가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걷기 시작하자, 그림자 병사들이 일제히 진우의 뒤를 따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'전군을 다 같이 움직이는 건 비효율적이다.'</p>  
<p>120명이나 되는 그림자 병사들을 한데 뭉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개개인이 약하면 모를까 기존의 병사들은 레벨업이 잘되어 있어 악마를 상대로도 그럭저럭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.</p>  
<p>게다가 지금은 A급 던전의 마수들까지 그림자 병사들에 합류한 상태였다.</p>  
<p>당연히 병사들 전체의 질이 크게 올라갔다.</p>  
<p>"끼에에에엑!"</p>  
<p>"키악-!"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...]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...]</p>  
<p>병사들의 무력 수준이 이렇게 확 뛰어 버리니 몬스터를 잡는 시간보다 몬스터를 찾아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문제는 악마성의 한 층이 웬만한 도시 크기에 필적할 만큼 넓다는 거였다.</p>  
<p>'이래서야 끝이 없겠어.'</p>  
<p>진우는 병사들을 20명씩 여섯 개 조로 나누었다.</p>  
<p>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몬스터들을 사냥하게 했다.</p>  
<p>내린 명령은 두 가지.</p>  
<p>'하나, 보이는 모든 적들을 처치할 것.'</p>  
<p>'둘, 층간 진입 허가서 아이템이 나오면 알릴 것.'</p>  
<p>병사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,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가능했다.</p>  
<p>병사들이 아이템을 주울 수가 없으니 허가서를 획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는 수밖에.</p>  
<p>'층간 진입 허가서' 말고 다른 아이템들은 모두 버려야 하겠지만, 지금 급선무는 최대한 빨리 최상층으로 가는 거였다.</p>  
<p>"출발."</p>  
<p>지시에 따라 여섯 개 조는 각자 길로 흩어졌다.</p>  
<p>그리고 얼마 후.</p>  
<p>[경험치 1,500을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,500을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900을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,100을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사방에서 경험치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'그림자들이 사냥을 시작했나 보다.'</p>  
<p>진우는 올라가는 경험치를 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그런데 곧 의아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.</p>  
<p>'들어오는 경험치가 줄었네?'</p>  
<p>상층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아래층부터 자주 봤던 하급이나 중급, 상급 악마를 만날 수 없었다.</p>  
<p>가장 흔하게 보이는 몬스터는 최상급 악마고, 최상급 악마들 속에 가끔 고위 악마가 섞여 있는 수준이었다.</p>  
<p>최상급 악마가 주는 경험치는 1,700.</p>  
<p>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몬스터인 고위 악마에게는 2,200의 경험치를 고정적으로 받았었다.</p>  
<p>한데 지금 들어오는 경험치는 그에 한참 못 미쳤다.</p>  
<p>'혹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들어오는 경험치가 줄어드는 것일까?'</p>  
<p>진우는 쉴 새 없이 올라가는 경험치 메시지를 가만히 지켜보았다. 획득량이 조금씩이지만 착실히 줄어갔다.</p>  
<p>병사들과의 거리가 경험치 획득량에 영향을 주는 게 확실한 것 같았다.</p>  
<p>'좋은 걸 알게 됐다.'</p>  
<p>경험치 정보를 알려 주는 악마성 던전 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깨닫기 어려운 사실이었다.</p>  
<p>또 하층에서는 몬스터들과 직접 싸우며 전투 감각을 익히고, 퀘스트용 아이템이었던 '악마의 영혼'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사들을 따로 내보내지 않았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그래도 줄어든 경험치가 크게 아깝지는 않았다.</p>  
<p>'경험치 획득량이 줄긴 했지만...'</p>  
<p>넓은 사냥터에서 효율적인 몬스터 사냥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획득량은 오히려 훨씬 더 늘었다.</p>  
<p>지금도 경험치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었다.</p>  
<p>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첫 번째 전투 이후 정체되어 있던 레벨업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'좋았어.'</p>  
<p>버려져야 하는 아이템들이 조금 아깝기는 해도.</p>  
<p>'레벨업과 공략 속도,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.'</p>  
<p>진우는 순식간에 두 단계나 건너뛴 레벨을 보며 흡족해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계획은 적중했다.</p>  
<p>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8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80층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병사들을 불러냈다.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일제히 소환된 199명의 병사들.</p>  
<p>각자 따로 흩어져서 몬스터를 잡으며 경험치를 먹다 보니, 병사들의 레벨도 가파르게 올라갔다.</p>  
<p>'어라? 탱크는 못 보던 사이에 10업이나 했네?'</p>  
<p>진우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주인의 관심 어린 시선에 기분이 좋아졌는지, 어제 막 28레벨이 된 탱크가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'우웅'하는 소리를 냈다.</p>  
<p>효율적인 사냥에 이득을 보는 건 진우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"좋다, 출발!"</p>  
<p>하던 대로 병사들을 여섯 조로 나누어 출발시키고, 본인은 혼자 길을 나섰다.</p>  
<p>혼자 움직이는 게 익숙하기도 했고, 병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기도 했다.</p>  
<p>'탐욕의 구슬' 아이템 버프를 받은 어금니를 제외시킨다면 그림자 병사들 전원과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어금니를 포함하면 어떨까?'</p>  
<p>글쎄...</p>  
<p>어금니까지 끼면 확실히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.</p>  
<p>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었다.</p>  
<p>'일주일 전이었나?'</p>  
<p>재미삼아, 혹은 실험삼아 그림자 병사에게 자신을 공격해 보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다.</p>  
<p>그림자 병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부했다.</p>  
<p>'그게 충성심인지, 아니면 다른 힘의 작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...'</p>  
<p>끝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.</p>  
<p>뭐, 녀석들을 부하로 부리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악마들이 왜 안 보이지?'</p>  
<p>진우는 창고에서 불러온 '바루카의 단도'를 위로 던졌다, 받았다 하며 몬스터의 기척을 찾았다.</p>  
<p>'이 근처인 거 같은데...'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기척은 분명히 근처에서 느껴지는데, 몬스터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언제였더라?</p>  
<p>전에도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던가.</p>  
<p>그때 땅이 몇 번 들썩거리는가 싶더니 확 하고 흙더미가 솟아올랐다.</p>  
<p>"킥킥."</p>  
<p>"키히히-"</p>  
<p>동시에 바닥에서 튀어나온 고위 악마 셋이 진우를 둘러싸고서 듣기 싫은 웃음소리를 냈다.</p>  
<p>진우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그걸 보고 먹잇감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한 악마들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먹잇감의 머리를 향해 있는 대로 벌린 아가리를 들이밀었다.</p>  
<p>가장 맛있다는 인간의 머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그러나 그 먹잇감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자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의 발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악마들의 머리가 먼저 바닥으로 툭, 툭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[고위 악마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고위 악마를 처치...]</p>  
<p>"아."</p>  
<p>진우가 손을 마주쳤다.</p>  
<p>언제인가 했더니 유진호와 마지막으로 돌았던 C급 던전에서였다.</p>  
<p>'그때 스톤맨들이 이렇게 땅속에 숨어 있었다가 나왔었지.'</p>  
<p>기억이 안 나서 잠깐 어두워졌었던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다.</p>  
<p>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환한 얼굴로 몬스터 사체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다 챙기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그런데 몇 발짝 안 가서 멈춰 섰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의 시선은 못 박힌 듯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발밑을 노려보며 말했다.</p>  
<p>"근데 니들은 왜 안 나오냐?"</p>  
<p>그때 떨린 것이 땅이었는지, 아니면 악마들의 동공이었는지, 이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쉽사리 80층을 벗어나지 못했다.</p>  
<p>'어딘가에 강한 녀석들이 있나?'</p>  
<p>또 한 개의 조가 그림자로 변해 진우에게 돌아왔다.</p>  
<p>마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파괴와 재생을 반복해서 진우가 병사들을 거두어들인 것이다.</p>  
<p>이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.</p>  
<p>76층에서 80층까지.</p>  
<p>네 개의 층을 오르는 동안 흩어져서 사냥하는 방식은 최고의 효율을 보였다.</p>  
<p>'고위 악마라서 버거운 건가?'</p>  
<p>확실히 80층부터는 최상급 악마 대신 고위 악마가 주를 이루었다.</p>  
<p>고위 악마는 땅에 숨는 잔재주까지 썼다.</p>  
<p>그래도 고위 악마에게 병사들을 이렇게 몰아붙일 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.</p>  
<p>'게다가...'</p>  
<p>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.</p>  
<p>습격을 받는 병사들은 전부 대장급이 없는 조였다는 사실이다.</p>  
<p>어금니, 이그리트, 아이언, 탱크가 있는 조는 멀쩡한데, 대장급이 없는 두 개의 조만 공격을 받았다.</p>  
<p>'설마 일부러 약한 쪽을 골라서 공격하는 건가?'</p>  
<p>그렇다면 상대의 약점을 간파할 수 있는 수준의 지성을 지닌 몬스터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.</p>  
<p>강한 데다 지성까지 있다.</p>  
<p>어떤 녀석들인지 몰라도 성가신 놈들임에는 틀림없었다.</p>  
<p>남은 조는 네 개.</p>  
<p>굳이 자신까지 포함시킨다면 다섯 개.</p>  
<p>'병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면 다음 목표는 뻔하다.'</p>  
<p>그렇게 생각한 순간, 진우의 신형이 사라졌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